

[1959-09-25, 에버렛 스완슨이 기도 동역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1959년 9월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구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의 '담요 지원 프로그램(Blanket Appeal)'에 응답해 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최근에 시카고 1케어(CARE, Cooperate and Relief Everywhere) 사무실의 직원 중 한 명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뉴욕에 있는 본사에서도 매우 기쁘게 여긴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후원하는 고아를 위해 담요를 하나 이상 주문했고, 어떤 이들은 모든 고아를 위해 담요를 주문했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은 케어(CARE)로 주문서를 보내주시거나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상단의 새 주소를 사용해 주십시오.)

올해 초여름에 저는 새로운 후원자를 찾는 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새로운 고아들 12명의 사진과 어린이 정보를 보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훌륭하게 수고해 주셔서 저희는 새로운 후원자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더 많은 어린이들을 거리에서 한국의 28개 보육원으로 데려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적은 양의 배급으로는 어린이들을 먹일 수도, 돌볼 수도 없는 약 10개의 다른 보육원으로부터 애절한 호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옷과 신발, 속옷, 장갑, 모자, 학교 등록금, 책과 학용품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다시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12명의 어린이를 더 선택했고, 이 편지 뒷면에 각 어린이에 대한 간략한 어린이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친구, 교회 단체 등에 보여주시고, 어린이들 중 한 명을 후원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이는 후원자들 자신에게 크나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집 없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에 곧 추운 날씨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한 달에 단 8달러로 어린이 한 명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의 간단한 계획을 알려 주십시오. 그들도 각 어린이의 사진, 이야기, 주소, 우편발송 지침 및 전체 세부 사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¹국제 원조 구호 기구(CARE, Cooperate and Relief Everywhere): 1940년대에 교전국의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민간 구호 단체이다. 현재는 10여 개국의 멤버들로 '케어 인터내셔널'이 결성되어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_%EC%9B%90%EC%A1%B0_%EA%B5%AC%ED%98%B8_%EA%B8%B0%EA%B5%AC).

선택한 어린이의 번호를 기재하고 양식을 작성하여 저희에게 우편으로 보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크리스마스까지 500명의 새로운 후원자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자를 얻기 위한 저의 기도와 진지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그를 섬기도록 훈련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제 마음의 짐을 덜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집 없는 한국 어린이들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에버렛 F. 스완슨 올림

(Page 2 어린이 정보 번역 생략)